

한나라 '대선 고소·고발' 모두 취하

姜대표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민주당에 협의 요청 '선거법은 취소와 상관 없어' 검찰수사 영향 없을 듯

한나라당은 5일 BBK 사건을 포함한 대선과 관련된 고소·고발 취하 방침을 밝히면서 통합민주당에 협의를 요청했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여야간 고소·고발 사건들은 우리 한나라당이 오늘부로 고소를 취하하고, 원내대표가 상대방 대표와 협의해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BBK 사건 등 대선과 관련해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각종 고소·고발을 취소했지만 검찰 수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받고 있는 정치인들이 대부분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돼 있는데, 명예훼손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검찰의 공소권도 없어지지만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고발자의 변심(變心)과는 관련 없이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특히 대선 때마다 있던 네거티브는 원래 한 번은 꼭 짚고 해당 정당과 당사자의 반성

과 참회를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정치권 모두의 화합을 위해 우선 BBK 당사자를 포함해 우리 당이 고소·고발한 것은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타당도 국민 화합과 정치권 화합 및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한나라당의 결심을 이해하고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자"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거부해 왔던 BBK 사건을 포함한 대선 관련 고소·고발 취하 방침은 쇠고기 파동으로 빚어지고 있는 정국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 통합민주당의 반응이 주목된다.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고발된 민주당 인사는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김종률, 박영선 의원 등이 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5일 광양시 다암면 청매실 농원을 방문, 주인 홍쌍리씨에게 매실 담그는 법을 들으며 향이리에 담겨진 매실을 맛보고 있다.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사람 사는 세상이란 말은 어디든 적용" 노무현 前대통령 광양서 매실따기 체험

노무현 전 대통령이 5일 광양에 있는 청매실 농원을 방문, 매실 따기 체험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인 권양숙 여사와 형 권영서,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창신섬유의 김금원 회장 등과 함께 이날 낮 12시10분경 광양 청매실 농원을 찾아 약 3시간 동안 농원을 둘러봤다.

헌팅캡을 쓰고 푸른색 재킷과 감청색 바지 차림을 한 노 전 대통령은 청매실 농원 주인인 홍쌍리 씨로부터 청매실을 따고 담그는

방법을 배웠다.

노 전 대통령은 농원을 둘러보면 서 관광객들과 악수를 하고 다정하게 기념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일부 관광객들은 노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으며 "옛날이 좋았다. 그동안 고생했다"며 박수를 치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노 전 대통령은 청매실 농원 방명록에 '사람사는 세상'이라고 적으면서 "평소에 쓰는 문구다. 이 말은 어디든 적용되니까"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광양지역 한 노사모 회원으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무슨 일을 했든지, 현명하십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3행시로 지은 글을 선물로 받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청매실 농원에서 마련한 점심을 먹고,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성용 광양시장이 배웅하는 가운데 오후 3시경 김해 봉하마을로 떠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

민주 "사과 선행돼야 쌍방 소 취하 가능"

"늦었지만 환영"...당사자들은 '냉랭'

통합민주당은 5일 한나라당이 BBK 사건 등 대선 관련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나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쌍방 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이 늦게나마 고소·고발을 취하하려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한데 대한 사과가 선행돼야 우리도 한나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이 제기한 '김경준씨 기획입국설'은 한 마디로 무고였고 허위사실이었

다"며 "마치 한나라당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고소 취하를 얘기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스탠스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을 향해 양당간 얽혀있는 고소·고발 취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입장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민주당이 기획입국설을 제기한 한나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의 경우 한나라당측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다 검찰도 기획입국설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으로서 "아쉬울 것 없다"는 자신감도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실제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들은 이날 소취하 방침이 전해지자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도 처음에는 만사지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했으나 오전 최고위회의를 거치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고발을 당한 김종률 의원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6·4 재보선 참패라는 정치적 위기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제안한 정략적 산물"이라며 "한나라당이 BBK 문제를 계속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면 차라리 고소·고발을 취하지 말라"고 한나라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측근을 통해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공방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민화합과 정치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시는 정치보복이라고 느껴질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여야 대선 고소·고발 어떤 게 있나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을 상대로 23건의 고소·고발 및 수사의뢰와, 7건의 민사소송 등 모두 30건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2007년 11월 "이명박 후보가 불교방송 사장의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 한나라당은 정 후보가 이 후보를 비방하는 신문광고를 신자 허위사실공포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했다.

통합민주당 장영달 전 의원의 경우 지난 2007년 6월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당협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이명박·박근혜 X 파일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한나라, BBK·김윤옥 여사건 등 30여건 민주당, 상암 DMC 특혜분양 등 20여건

한나라당은 또 '이명박 후보가 역외편드를 이용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통합민주당 김현미 전 의원의 경우 '이명박 후보 부인이 호화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유포로 고발되고, 민사상 1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된 상태다.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와 BBK 주가조작 사건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통합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도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이미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통합민주당이 한나라당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도 20여 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민주당은 이명박 후보가 BBK와 관련해 김경준과 공모한 혐의를 비롯해 이 후보 소유의 빌딩에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해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3~4건을 고발했다. 또 이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상암 DMC 특혜분양에 연루돼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과 호남 소통하는 가교 되겠다"

‘자랑스런 전남대인’ 선정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

"24년간의 당료 생활을 거쳐 수도권에서, 그것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을 모교가 인정해주는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합니다."

전남대 개교 제56주년을 맞아 '자랑스런 전남대인'으로 선정된 정양석(50·서울 강북갑) 의원은 인터뷰 내내 목소리에서 웃음기가 가시지 않았다. 호남출신이면서도 호남과 정치성향이 다른 길을 걸어왔던 그동안의 '외로움'이 이번 상 수상으로 말끔히 가셨다고 했다.

보성 벌교남초등학교와 광주 살레시오 중·고교를 거쳐 전남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정 의원은 지난 1984년 민정당 중앙당 사무처 공채 5기



로 정치에 입문했다. 정치를 하고 싶지만 비운 동년이었던 데다 인맥도 없어 고심하던 차에 민정당 공채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정 의원은 "하지만 당내에는 정치적으로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선배가 거의 없어 힘든 길을 걸어왔다"며 "실력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고 지난 시간을 돌아봤다.

조선 여당의원이긴 하지만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의

“이번엔 대통령과 정부가 겨야 한다”며 나름의 해결책을 내놨다.

“지금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분석한 그는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고라도 쇠고기 수입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와 정책 등 새 정부의 실정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한꺼번에 폭발할 것이라는 진단과 함께 “청와대와 내각, 당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남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호남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싶다”며 “호남의 현안들이 현 정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답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경남경무청·경남경찰청·경남경찰학교

7월 1일 경찰 아카데미 특강 개강

경남경무청·경남경찰청·경남경찰학교

전국 최고 경찰전문 교수진	2차년도 한계 완성
전국 최고위 교육시설 및 환경	개인 지도교수제 (성적·수업 관리)

아카데미 특강 103 이벤트(상세한 내용은 학원 홈페이지 참조)

교재 무료 증정, 경찰장학생 선발고사, 2차 시험대비 무료 특강

대한민국 No.1 경찰 호남 최대 경찰전문학원!

동부경찰학원 www.dongbu.ac.kr 02-234-1112 동부경찰서 뒤(지하철 구도당역)

ANYCHE CHAIR

Anyche

가볍고 편안한 사무용의자. 회사 전문 생산업체 - 무인공정사

www.anyche.com